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10.(화)

# 한국수자원공사, 영국 리버풀권역정부와 조력발전 콘퍼런스 개최로 글로벌 협력 강화

- 9일 시화조력관리단서 '조력발전 콘퍼런스' 공동 개최
- 한·영 조력 전문가 교류로 기술 협력 강화 및 조력에너지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1월 9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 조력문화관 대강당에서 영국 리버풀권역정부(LCRCA)와 공동으로 '조력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력발전 기술 공유와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 지자체, 기업, 학계 및 영국 리버풀권역정부 등 국내외 조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력에너지는 기상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고 발전량 예측이 가능한 청정에너지로,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시화조력발전소는 2011년 254MW급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원활한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 갯벌 복원, 탄소 저감효과를 거두며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영국 리버풀권역정부의 요청으로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리버풀 머지(Mersey)강 조력발전 추진과 관련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협력 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합의각서(MOA)를 맺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시화조력의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의 재생에너

지 정책 방향과 조력발전의 역할 ▲ 영국수력협회 메리 드루리(Mary Drury) 의장의 영국 조력발전의 기회와 정책 그리고 실현 방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진순 박사의 국내외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 ▲ 영국 리버풀권역정부 앤디 킹(Andy King) 이사의 영국 머지(Mersey) 조력 개발 현황 및 현안 사항 ▲ 연세대학교 주원구 교수의 조력발전량 극대화를 위한 수차 운전 최적화 기술 등 총 6건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조철희 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되어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조력발전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등 조력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오봉근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은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조력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시화조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협력을 지속해 조력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 담당 부서 | 에너지기획처<br>신사업부 | 책임자 | 부 장 | 가필순 (042-629-2910) |
|---|---|---|---|---|
| | | 담당자 | 차 장 | 이인성 (042-629-29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1월 9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 조력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여섯 번째 오봉근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영국 리버풀권역정부(LCRCA)와 공동으로 '조력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력발전 기술 공유와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